

광주시 꼼꼼 감사... 숨은 세금 꼼짜마!

세입분야 특정 감사... 지방세·세외수입·환급금 연계조사 부적정 업무 18건 적발·17억 추가 징수·직원 3명 징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과세자료를 연계조사하는 감사기법을 도입해 17억3800만원의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23일 “지난 6월23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세입분야 특정감사결과, 5개 자치구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17억3800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했으며, 감사 결과를 광

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내 분야별 정보, 감사 범위 코너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입분야 감사는 지방세, 부담금, 세외수입, 환급금 등 지자체의 수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로, 총 18건의 부적정한 업무 추진 사례를 적발해 지방세 4억5000만원,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억8800만원 등 총

17억38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부과 조치된 17억3800만원을 유형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과세자료를 상호 연계해 10억7500만원, 새로운 대법원 사례 등을 적용해 4억5000만원, 정백-e 개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억5800만원을 적발했다.

실제 시는 이번 감사에서 광산구 지족동에 소재한 A기업은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 승인을 받고 지방세와 세외

수입 2억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2013년 지방세 조사에서 장외 목적인 제조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농지보전 부담금 등 1억5700만원을 추가 부과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박옥창 광주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모든 지자체가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탈루되거나 은닉된 지방 세원을 발굴한 모범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감사 기법 등을 개발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기상기업협의회 출범... 날씨산업 본격 육성

정기세미나·공동연구사업 초대 회장에 김준식 대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이희상)이 호남권 기상산업 발전과 시장규모 확대를 목표로 호남기상기업협의회 창립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광주지방기상청 대강당에서 열린 호남권 기상산업 발전과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호남기상기업협의회 창립식(사진)에서는 기상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여 전략 포럼 등 다양한 정보교류와 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번 창립식을



계기로 호남지역의 기상기업들 간 정보교류와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협력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국가기상산업 발전과 육성정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특히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기상산업과 일반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

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상기업협의회는 앞으로 회원사 간 정기적인 세미나 등 의견을 수렴해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창립식에서 호남기상기업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동방전기통신 김준식 대표는 “앞으로 회원사 간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호남의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교류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진흥원과 기상청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협의회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중이용시설 화재 점검

내달5일까지 지산유원지 일대

광주시는 23일 “동절기를 맞아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오는 12월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치구, 소방서가 참여해 20여 명 5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음식점과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산유원지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상구 개방, 유도등 점등, 소화기 비치상태 여부 ▲가스 용기 관리 상태,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가스밸브 작동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규격전선 사용 여부, 배선상태 점검 등이다.

정확기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동절기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유기농 김치에 사랑 담았어요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직원들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배추로 담긴 1500kg(500여 포기) 상당의 김장 김치를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김치 나눔 행사에 힘을 보탠 생활개선광주시연합회원 20여명이 김장김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제공>

광주시-환경산업기술원 업무협약

공동 연구·교육·전시회 개최

광주시가 지역 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비즈니스 룸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발전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시 환경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주요 국제회의, 전시회 개최 지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실증 지원 ▲일자리

박람회, 공동 워크숍 개최 등 광주지역 환경산업 육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환경산업 육성 계획인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광주시 환경산업 실태조사, 광주시 환경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업무 등도 진행한다.

유용빈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국내 최고의 환경산업 기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을 통해 향후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등 광주지역 환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하수도요금 내년 10% 인상

가정용 전국 평균보다 낮아 2017년까지 단계적 상승

광주시가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타 도시보다 낮게 책정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나선다.

23일 광주시가 마련한 하수도 사용자 적정화 조정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계획에 따라 내년 5월 납기분부터 10.3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2016년 9.40%, 2017년 8.60%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정용은 월 20t 사용기준일 때 현재 4800원에서 5200원으로 400원이 오를 전망이다. 2016년에는 5600원, 2017년에는 6000원으로 현재보다 1200원이 더 오를 예정이다.

대중탕용은 1000t 기준 30만원에서 내년에는 34만원으로 오르고, 2016년에는 38만원, 2017년부터는 4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9월 현재 광주시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월 20t 사용자 4800원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6320원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내년에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금 인상을 홍보하고 5월 납기분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권고하는 하수도 사용자 적정화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을 정했다”면서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이 원칙인 만큼 인상 시 절약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일사천리대회’서 대통령 표창

TV홈쇼핑 입점 지원 우수

광주시는 23일 “최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전국일사천리대회’에서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일사천리대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TV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수 지자체와 모범 중소기업인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모범사례를 홍보하는 행사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비를 지원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 17개사의

제품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Home&Shopping)’에 입점시키는 등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없이 ‘일사천리’로 상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홈쇼핑 입점을 추천받은 17개 기업 중 현재까지 11개사의 우수중소기업 제품이 홈쇼핑에서 10억원대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특히 디케이산업의 제품이 ‘디에페’는 방송 1시간 만에 600대 전량이 판매돼 1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광주김치 감칠매기(2억2000만원 매출), 루바니 에코백(1억5000만원 매출)도 인기리에 판매됐다.

/*박진표기자 lucky@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승구 70m 허니문빌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062) 372-7585
 010-3601-7701
 사·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